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8, pp.175-186
<https://doi.org/10.29212/mh.2026..138.17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베트남전쟁 인식의 폭을 넓힌 안내서

- 이신재·이휘현 공편, 『파병 6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5.)

손규석 | 정치학 박사,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베트남전쟁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 독립과 통일을 위해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이다. 식민지배를 유지하려는 프랑스와 독립을 요구하는 베트민(월맹) 간의 내전적 성격이 강한 ‘제1차 베트남전쟁(인도차이나 전쟁)’과 달리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미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확대 전개됐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던 대한민국은 1964년 비전투요원으로 구성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건군 이래 최초로 파병했다. 다음 해에는 전투부대인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을 파병한 데 이어 제9사단을 추가 파병하면서 1973년 철군할 때까지 연인원이 32만 명에 달했으나, 이 과정에서 5천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8년여에 걸쳐 진행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정치·외교, 군사·안보, 그리고 경제·사회 등 한국의 현대사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베트남전쟁이 갖는 이런 중요성에 따라 그동안 많은 관련 연구가 군과 학계에서 진행됐고, 이 책 『파병 6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을 발간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결과로 『파월한국군전사』(11권)과 『주월한국군 자료집』(6권), 『베트남전쟁과 한국 정부의 지원활동』, 『참전자 증언집』(6권), 『통계자료집』 등 다수의 연구서와 자료집이 발간됐으나, 이들 연구서는 공간사(公刊史)라는 관찬(官撰)의 성격상 대체로 정사에 치중한 전문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이런 제한적인 점을 보완해 일반 국민이 쉽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베트남전쟁과 국군의 파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60주년을 맞아 이 책을 편찬했다. 이 책은 기존 연구서의 통사적 접근과는 달리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파병 주둔군의 지위와 작전지휘권 문제, 북한군 참전 문제, 파월 기술자 활동, 종군기자 활동 등 다양하고 흥미 유발이 가능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베트남전쟁과 그 안의 파월 한국군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2.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파병 6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은 건군 이래 최초의 해외파병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찬됐다. 이에 따라 저자는 총 3개 부, 4개 장으로 책을 구성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는 사실상 이 책의 본문으로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배경과 파병 과정 및 철군,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수행한 주요 작전 및 전투와 파병에 따른 성과와 의의를 4개 장에 개관하고 있다.

제1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하는 배경을 시대적 상황인 냉전의 전개와 베트남 정세의 혼란과 결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베트남은 호찌민이 주도하는 베트남이 독립을 추구하면서 식민지배를 유지하려는 프랑스와 충돌했다. 1946년 ‘제1차 베트남전쟁(또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호찌민은 공산 진영, 프랑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전쟁은 예상과 달리 베트남이 승기를 잡아갔다. 양측은 제네바 평화회담을 통해 북위 17도 북쪽은 호찌민의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 남쪽은 프랑스의 보호를 받는 ‘베트남국’의 통치를 결정했다.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장 봉쇄를 위해 베트남 문제에 개입,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의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했다. 응오딘지엠이 통일방안인 남북 총선거를 거부하자, 북베트남은 무장 게릴라 조직인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을 결성해 남베트남 정부 전복에 나섰다. 남베트남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투부대의 투입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환, 한국 등 우방 25개국에 베트남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제1장의 두 번째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내 정세와 정부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촉자는 미국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 말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배경은 한국 정부의 파병 요청을 미국 정부가 수용한 것이었다. 미국의 지원과 원조가 절실했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군 파병을 제안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한 정책 변화는 한미관계를 긴장시켰고,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베트남 파병 요청은 중요한 기회였다.

제2장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부터 철군까지의 과정을 차수별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 9월 11일 비전투부대인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의 제1차를 시작으로 제4차까지 실시됐다. 이 장의 첫 번째 요지는 한국군의 제1차 파병 과정에 대한 소개이다. 베트남에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한 미국은 25개 우방국에 지원을 요청했고, 1개 이동외과병원의 파병을 요청받은 한국은 최초의 해외파병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당시의 국내 분위기는 국가안보와 국제적 신의 차원에서 파병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30명 규모의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교관단으로 ‘한국군사지원단’을 창설했고, 국회의 파병 동의를 얻어 1964년 9월 11일 베트남을 향해 부산항을 출항했다.

두 번째 요지는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할 한국군의 제2차 파병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은 톱킹만 사건 이후 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 감행했다. 전황 변화에 미국은 지상 병력의 투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확대되고 후방지원의 추가 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은 공병 1개 대대와 수송 및 정비 요원 등 1,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은 보병 1개 대대의 경계 병력을 포함한 2,000명 규모의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을 편성해 국회의 파병 동의에 따라 1965년 3월 10일 인천항을 출발, 임무에 돌입했다.

세 번째 요지는 1965년 10월에 실시된 한국군 제3차 파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전투부대로 편성된 한국군의 제3차 파병은 미합참의 1개 사단 증파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동안과 달리 미국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을 적극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회의 의결로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부대인 수도사단(맹호부대)과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은 새로 창설된 ‘주월한국군사령부’의 통합 지휘하에 꾸년(Quy Nhon)과 깜란(Cam Ranh)에서 임무에 착수했다.

네 번째 요지는 한국군의 제4차 파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966년의 제4차 파병은 전투부대의 추가 파병이었다. 미국의 대규모 파병에도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악화해 더욱 획기적인 병력 증원이 필요했다. 국내의 반전 여론으로 추가 파병이 어려워진 미국은 전투부대의 증파를 한국에 요청하며 ‘브라운 각서’로 제3차 파병 시의 합의를 서면 보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도사단 제26연대와 제9사단을 국회 동의를 거쳐 제4차로 파병했다.

다섯 번째 요지는 4차에 걸쳐 파병된 한국군이 1971년부터 1973년 기간 중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철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은 1968년 1월 30일 ‘구정 대공세’로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 세계는 반전 여론에 휩싸였다. 베트남 정책을 재고한 미국은 북베트남에 평화협상을 제의했고,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리처드 닉슨은 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발표했다.

1969년 7월 미군의 단계적 철수 개시로 연합군의 철수가 시작

됐고, 철수를 미루던 한국은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17,000명의 병력을 제1단계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후 병력을 10,000명으로 축소한 한국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철수를 개시해 1972년 4월 13일 마지막 철수부대가 부산항에 입항하며 제1단계 철수를 완료했다. 제2단계 철수는 미국과 남베트남의 요청으로 1973년 전반기로 연기했으나, 파리평화협정에 따라 1973년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귀국을 완료해 8년 6개월간의 파월활동을 종료했다.

제3장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수행한 주요 작전 및 전투를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은 남베트남 각지에서 게릴라로 활동하는 ‘베트콩(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수색 섬멸하는 비정규전 위주였으며, 주둔지 상황에 따라 부대별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군은 최초 파병 이후 1966~1967년 기간 중 군단, 사단급 규모의 대규모 평정작전을 펼쳤으나, 휴전협정 추진 이후에는 소부대 위주의 작전으로 전환했다. 저자는 부대 규모, 성과 및 의의 등에 따라 5건의 작전 및 전투를 주요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 각 전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1965년 10월 29일 수도사단 제1연대 1대대 3중대가 빈딘성 풍선(Phung Son) 마을에서 야간에 기습해온 1개 소대 규모의 베트콩을 격퇴한 풍선 전투이다. 이 전투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수행한 최초의 전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1969년 8월 9일과 10일 수도사단 기갑연대 3대대 9중대 예하 2개 소대가 미군 전차 1개 소대의 지원 아래 독꼬(Duc Co) 지역에서 중대 전술기지를 습격한 2개 대대 규모의 북베트남군을 격퇴한 독꼬 전투로서 당시까지 베트남에 투입된 연합군 중 최대의 승전을 기록했다. 세 번째는 1967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쾨년 일대의 수도사단과 뚜이호아-판랑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제9사단이

각각 남과 북에서 진격해 작전지역을 연결한 오작교 작전으로 중부 해안의 핵심지역을 상호 연결해 전쟁의 새로운 국면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 번째는 1969년 9월 5일부터 28일까지 해병 제2여단 3개 대대와 미 해병 1개 대대가 팡남성 베리아(Berrier) 반도에 상륙해 지방 베트콩부대를 물리치고 지역을 평정한 ‘승룡 15호 작전’으로 불리는 베리아 상륙작전이다. 다섯 번째 사례는 안케 패스(An Khe Pass) 전투로 1972년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기갑연대 주축의 수도사단이 춘계 대공세로 빈딘성 안케 고개를 점령한 북베트남군 제3사단 12연대를 격퇴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회복했으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성과와 의의를 정치·외교, 군사·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국가발전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과 연계해 설명하고 있다. 8년여에 걸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의 현대사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 및 외교적 성과이다. 1960년대 초반 전반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던 한미관계는 베트남 파병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대규모 병력 투입으로 베트남전쟁을 끝내려 했던 미국의 우방국 동참 계획을 실제로 충족 가능한 동맹국은 한국뿐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얻기 위해 베트남 파병이 절실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 보장과 군사 및 경제원조를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관계는 협상의 관계로 바뀌었고,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의 신뢰 획득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위 강화가 가능했다.

둘째는 군사·안보적 성과이다. 긴밀한 안보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한미관계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군사원조는 안보 동맹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병력 부족에 직면한 미국이 주한미군

2개 사단의 베트남 전환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보장과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통한 장비현대화 등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며 자주국방 기반을 조성하는 원동력이었다. 그 외에도 베트남 파병은 한국군이 전투 경험을 습득하고 전술을 연마해 전투력을 배가하는 장이었다.

셋째는 경제적 성과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외화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다년간의 파병을 통해 획득한 상업 수출, 군납, 군인과 근로자 송금, 사상보상금, 건설 및 서비스 용역 등 경제적 편익은 10억 달러에 달하며 그 경제적 효과는 매우 컸다.

‘파병 60년, 그 속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제2부에서는 파병이 군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사안과 쟁점 등 30가지의 주요 사항을 선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항은 한국과 남베트남의 외교관계, 한국군 파병 과정 및 현지 활동과 이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등 파병에서 파생되는 사항들이다. 또한 파병이 단지 군대에만 국한되지 않은 관계로 종군기자, 기업과 근로자, 민간의료단 등과 관련된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한국과 남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과 태권도 시범단 및 군사사절단 활동, 태권도로 민사작전 활동을 펼친 태권도 교관단, 베트남 현지의 북한군 묘지와 북한군의 참전, 한국형 전투식량인 K-레이션의 개발 보급, 한국 종군기자의 베트남 전장 취재, 군예대와 연예인 위문단 활동, ‘파월민간의료단’의 파견 활동과 한월 메디컬 센터 건립, ‘베트남특수’를 견인한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파월근로자 활동 등이다.

이처럼 이들 항목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외교정책에서부터 민

간 차원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항목은 전쟁사나 관계사료 등에도 언급되지 않거나 비교적 덜 알려진 비화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의 성격을 지닌 제3부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통계와 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개된 통계는 주월한국군 병력 현황으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연도별 파병 수준과 각 부대의 연도별 병력 수준, 신분(계급)에 의한 연도별 병력 수준, 급수에 의한 군무원 연도별 병력 수준, 파월 연 병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월한국군의 피해 및 손실 현황으로 각 군의 전사·순직·사망자 수와 전상·부상·실종자 수를 총괄 및 연도별로 소개하고 육군과 해군 및 해병대의 전사·순직·사망자 수도 연도별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월한국군의 전과 및 작전 현황으로, 파병 기간 중의 전과 총괄을 연도별·유형별로, 그리고 대대급 이상 대부대 작전과 중대급 이하 소부대 작전을 연도별·부대별로 구분해 기술하고 있다.

네 번째는 베트남 파병의 경제적 효과로, 베트남 특수로 불리는 참전 기간 중의 파병 관련 외화 수입 현황을 연도별·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외화 수입의 구성요소인 송금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각종 통계와 함께 제3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연표이다. 1964년 7월 15일 남베트남의 지원요청서 접수부터 1973년 4월 26일 주월한국군 복귀정리단 해단까지의 주요 사항을 일자별로 축약 설명함으로써 한국군의 파병 활동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 나가며: 이 책의 의의와 평가

8년여에 걸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친밀한 한미관계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을 제공했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 안보 동맹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군과 학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전쟁사의 발간 형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즉 편년체 형식의 기술과 통사적인 접근은 일반 대중의 손쉬운 접근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가 책머리에서 밝힌 대로, 『파병 6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은 국군장병과 일반 국민이 더 쉽고 종합적으로 베트남전쟁과 국군의 파병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전쟁사라기보다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종합교양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이 기존의 베트남 전쟁사와 다른 차별적인 연구 성과는 제2부 ‘파병 60년, 그 속의 이야기’에 언급된 주요 사항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파병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파병부대가 해당 국가에서 갖는 법률적 지위와 관련된 주둔군 지위와 독자적 작전지휘권, 전장 상황이

나 여건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술기지 운용, 파병 장병의 전의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전시 무공훈장 및 휴가 시스템, 낮선 기후와 지형에 기인한 풍토병 등 질병 극복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런 사항들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있어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의 또 다른 의미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배경 및 과정과 주요 작전 및 전투, 철군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연계성 있게 설명해 베트남전쟁의 본질은 물론 대한민국과의 연관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의 장점을 든다면, 첫째는 저자의 깊고 풍부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경험과 성과가 이 책의 서술내용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관련 분야의 심층 연구를 통해 『베트남전쟁과 한국 정부의 지원활동』,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같은 연구서와 “파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용,” “북한 공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같은 학술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오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뿐 아니라 미공개된 비화 등을 발굴해 내용에 녹여냄으로써 일반 대중의 흥미를 불러올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공식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당시 관련 부처의 다양한 1차 사료와 외교문서, 국회 회의록, 국방부 및 주월사를 비롯한 파병 사단 등의 작전 문서와 함께 주요 관련 인물의 증언 및 회고록, 각종 주요 통계 및 연표 등을 활용해 책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다. 이 책을 발간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는 베트남전쟁 당시 연락장교단을 편성해 현지에서 ‘전투상보’와 ‘부대 역사 보고’

등 주요 문서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런 1차 사료들이 이 책의 집필에 활용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이 책의 다소 아쉬운 점을 언급한다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베트남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와 달리 요즈음 세대는 한국군 용병설과 민간인 피해, 한국군 포로 및 고엽제 문제 등 현실적이고 사회문제로 비화가 가능한 이슈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잘못된 인식의 바로잡기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득도 함께 다루어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국내 행사나 활동은 찾아볼 수 없고, 참전용사에 대한 기억마저 점차 희미해져 가는 현실에서 이 책의 발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베트남전쟁과 그 속에서 한국군이 수행한 활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이 책이 유익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